

배포

2026. 8. 5.(수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재난·재해 이재민에게 신속한 보금자리 제공..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

- LH, 이달말까지 세종·대구 권역에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 추진
- 자체 표준설계안 마련해 설치효율성·이동성 높이고, 무장애 설계도 반영
- 이성훈 LH 사장 “선제적 주거지원 체계로 위기의 순간 든든한 주거안전망 될 것”

-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산불, 호우 등 재난·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100호를 비축한다고 5일 밝혔다.
- LH는 지난 ‘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, 각종 재난·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지역 인근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이재민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해 왔다. 누적 제공 호수는 1,441호에 달한다.
- 지난해 경북 지역 대형 산불 발생 시에도 LH는 총 120호의 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제공했다. 그러나, 비도심 지역 한계상 인근 지역 임대주택 공가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.
-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, LH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와 ‘재난대응 모듈러주택 비축사업’을 추진해 왔다.
- ‘재난대응 모듈러주택 비축사업’은 갑작스러운 재난·재해 발생에 대비해 LH가 사전에 모듈러주택을 비축해 두었다가, 피해 발생 즉시 현장으로 모듈러주택을 운송·설치하여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안전한 임시 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.
- LH는 이달 말까지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을 완료할 방침이다. 해당 모듈러주택은 신속한 운반을 위해 세종·대구 권역에 분산 배치되며, 재난 발생 후 이재민 수요조사 및 지자체 협의 등을 마치는 대로 최대 7일 이내 운송·설치를 마칠 계획이다.

- 이에 앞서, LH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, LH 토지주택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모듈러주택 표준설계안을 마련해 적용했다.
 - 재난·재해 환경에서도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 효율성과 이동성을 높였으며, 보다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창호 면적을 넓혀 실내 개방감과 채광을 늘리고, 고령자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 무장애 설계도 반영했다.
- LH는 해당 모듈러주택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이주민을 위해, 추후 자가 주택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을 위한 설계도서 등 일체를 제공할 계획이다.
- 이성훈 LH 사장은 “예기치 못한 재난·재해가 발생했을 때, 가장 시급한 것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주민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신속히 제공하는 것”이라며 “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,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빈번해지는 만큼, 선제적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해 위기의 순간 든든한 주거안전망이 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부서	주거복지계획처	책임자	팀 장	임보경	(055-922-3301)
		담당자	차 장	김재수	(055-922-3307)

LH,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공급 절차



LH, 재난재해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 위해 **올해 재난대응 모듈러주택 100호 비축!**